

# CRYPTO SAPIENS

박종백 지음

## 크립토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

블록체인, 토큰경제와 탈중앙화의 길

AI와 결합한 스마트 컨트랙트, 디지털화폐, STO 증권, NFT와 DAO까지-

**“한국, 웹3.0 · 토큰경제를 주도하라!”**

해시드 김서준 대표, 김광석 이코노미스트 추천  
대한민국 최고의 블록체인 법률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를 쌓는 법

◆ SERICEO 비즈니스 북클럽 선정도서 ◆



## AI와 메타버스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웹3.0을 준비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블록체인·가상자산팀장)로, 블록체인, 암호자산, 오픈소스, 개인정보, 금융 거래와 규제에 관한 국내외 자문을 해온 블록체인 분야 최고의 법률 전문가



저자 박종백

### 이 책이 답하는 크립토 혁명 관련 질문들

- 크립토사피엔스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는 길은?
- 왜 지금, 크립토 문해력이 필수인가?
- AI와 블록체인이 결합되어 나타날 트렌드는?
- 챗GPT 설계자가 내놓은 월드코인과 기본소득의 관계
- 웹3.0을 향해 가는 각국의 디지털 레이스 현주소는?

- 동인도회사, 계, DAO, 비트코인의 공통점은?
- 관념적 신자산인 주식과 토큰의 공통점과 다른 점은?
- 유럽이 미국, 중국보다 크립토 혁신에 능한 이유
- 블록체인이 은행, 정부 인증 등 중개자의 역할을 대체한다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자산을 구매해도 될까?

### “이 책을 추천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 나갈 크립토사피엔스 리더를 위한 상식과 역량을 담았습니다.

◆ 김서준(해시드 대표) ◆

이 책을 통해 블록체인 지식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옆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읽어야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 허인(KB금융지주 부회장·전 KB은행장) ◆

크립토 문해력을 높여 토큰을 비롯한 가상경제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이 될 책입니다.

◆ 김광석(경제읽어주는남자·한양대 교수) ◆

‘크립토를 이제 좀 안다’는 생각이 든 분들께도 추천합니다.  
그간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니까요.

◆ 장중혁(블록체인경제연구소장·바라고 대표) ◆

2023년 9월 3일 21시에 북톡방에서  
소셜전략연구소 송영우가 소개하다

# 1

## 이 중에 당신이 아는 단어는?

1. 블록체인
2. 분산원장
3. 스마트 컨트랙트
4. 가상자산
5. 토큰 이코노미
6. 디파이(DeFi)
7. 스테이킹 (Staking)
8. 스왑 (SWAP)
9. STO(Security Token)
10. DAO
11. NFT
12. DEX
13. CBDC
14. 메타마스크
15. 전자지갑
16. 크립토 윈터
17. 탈중앙화
18. 스테이블 코인
19. SBT
20. DID
21. 작업증명
22. 지분증명
23. 메인 넷
24. P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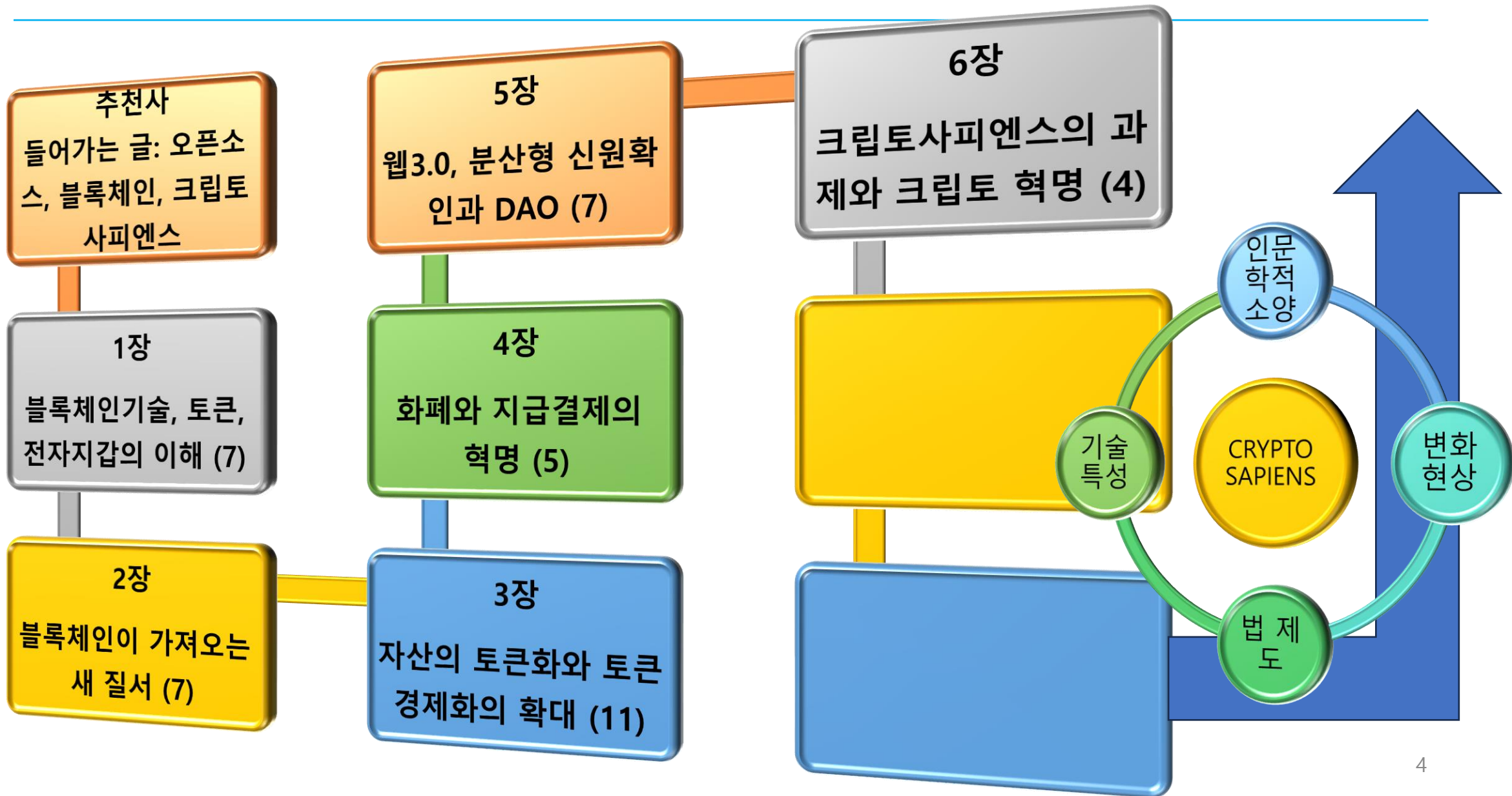
## 2

#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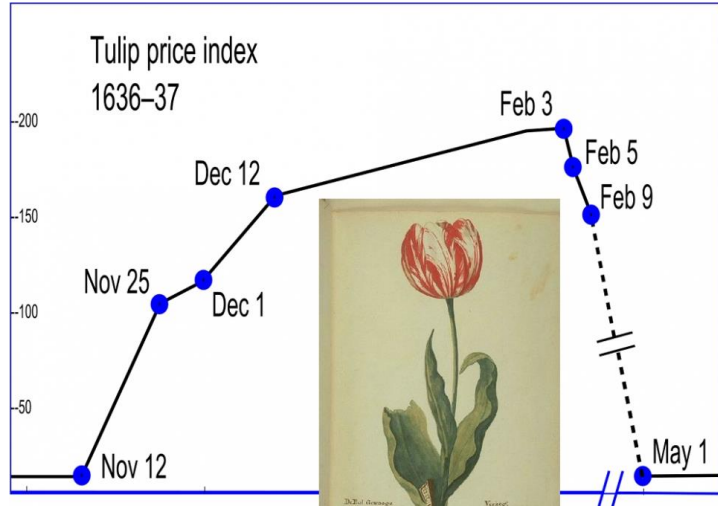
1. 블록체인의 원리
2.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전산 장치들이 필요한 이유
3. CEX와 DEX의 차이점
4. 스테이킹 (Staking)과 스왑 (SWAP)의 차이
5. FT와 NFT의 차이점
6.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7. 합의 알고리즘



# 책의 목차와 내용 구성



# 가상 자산에 대한 생각들 : 일시적인 광풍이다 ?



1636년 네덜란드 : 터키 원산의 튤립이 큰 인기를 끌고,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 튤립의 선물거래까지 등장. 뿌리 하나가 8만7000<sup>유로</sup>(약 1억6000만원)까지 치솟기도 함. 그러나 어느 순간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거품이 터짐. 튤립 파동은 네덜란드가 영국에게 경제대국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는 한 요인이 됨

- 비트 코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광풍이다.
- 가상 자산은 위험하다
  - 24시간 거래, 아무런 안전 장치가 없다
  - 너무나 변동성이 심하다
  - 폰지 사기 같다
  - 해킹을 잘 당하는 것 같다
-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다.
  -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다. 생산적인 그 무엇도 아니다
- 폰지 사기 같다.

# 1장 블록체인의 기술, 토큰, 전자지갑의 이해

---


- 크립토 문해력이 필요한 이유
-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6가지 기술
-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계속 발전하는 기술
- 블록체인의 제도적 의미
- 토큰, 코인과 암호자산의 명칭 논란과 제안
- 토큰의 유형구분
- 전자지갑은 크립토 세계로 가는 관문

# 크립토 문해력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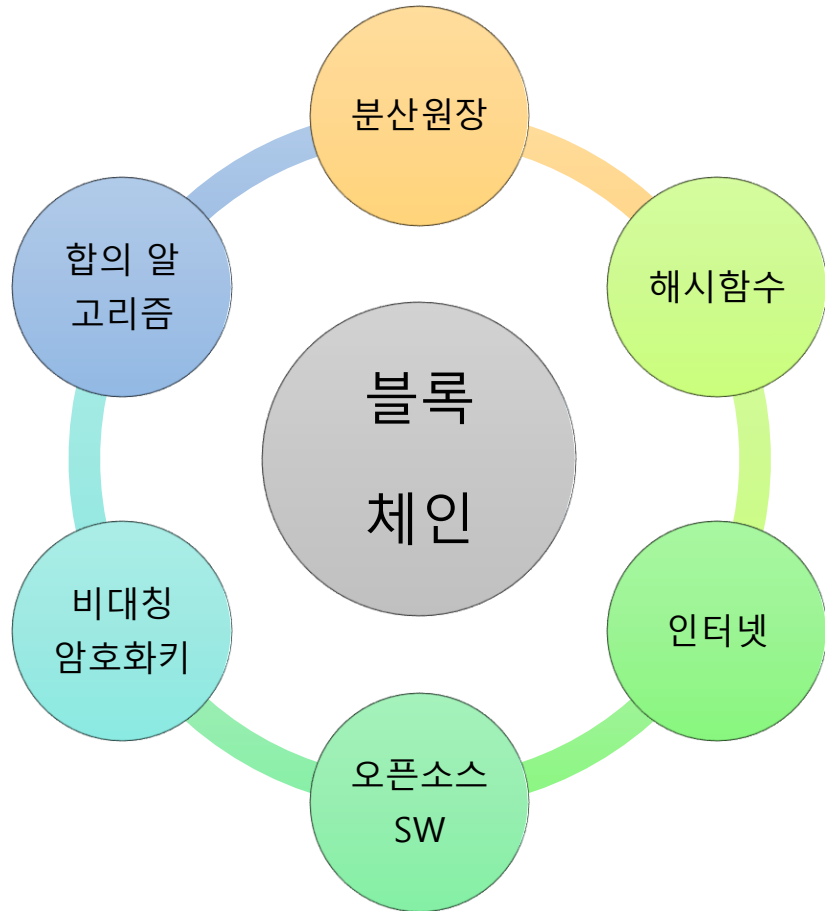
-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 체인(public blockchain)에서 발행된 토큰
- 특정회사의 서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 컴퓨터(노드)의 기록원장에 존재
- 토큰을 보유하는 데 특정 중개자, 약관, 계약 불필요
- 토큰 관련 권리를 확보하려면 스스로 기술적 구조를 이해해야 함
- 이러한 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크립토 문해력' 이라 함

<https://brunch.co.kr/@brunch37uq/12>

- 
- 토큰경제가 확대되는 시대에 블록체인기술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권리의식과 주체성을 갖춘 토큰경제 참여자가 되는 필수요건
  - 블록체인기술의 핵심구조와 작동원리는 앞으로 상식이 될 것
  - 크립토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면 앞으로 블록체인으로 인한 자산혁명에 참여하기 어려운 크립토 문맹에 빠질 위험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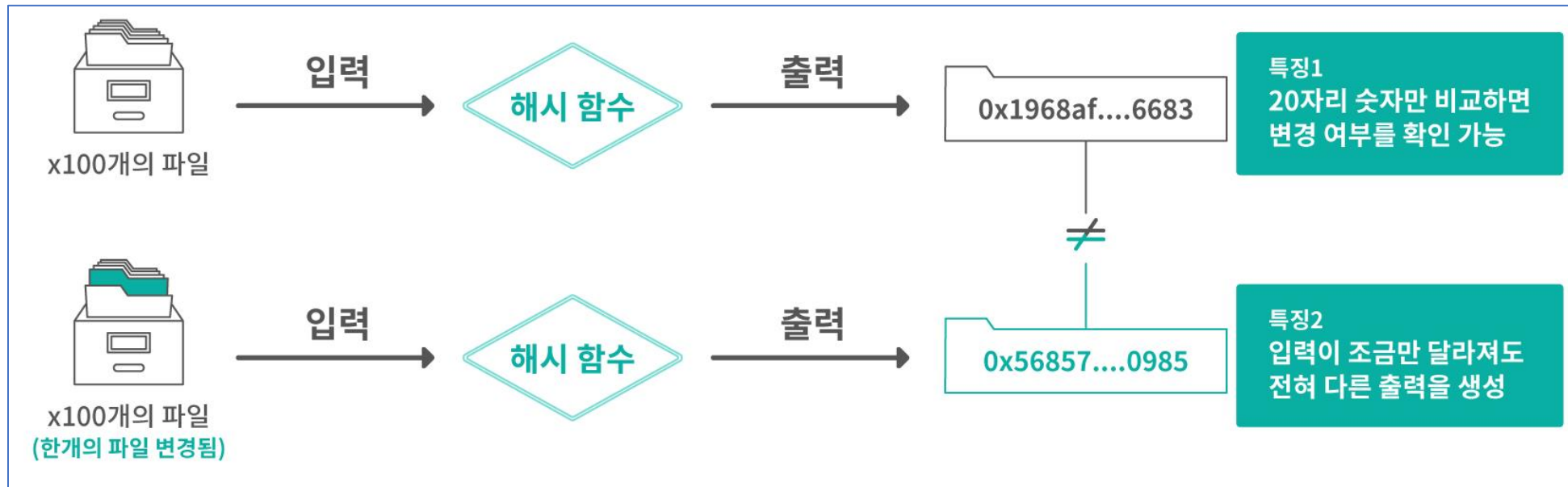
#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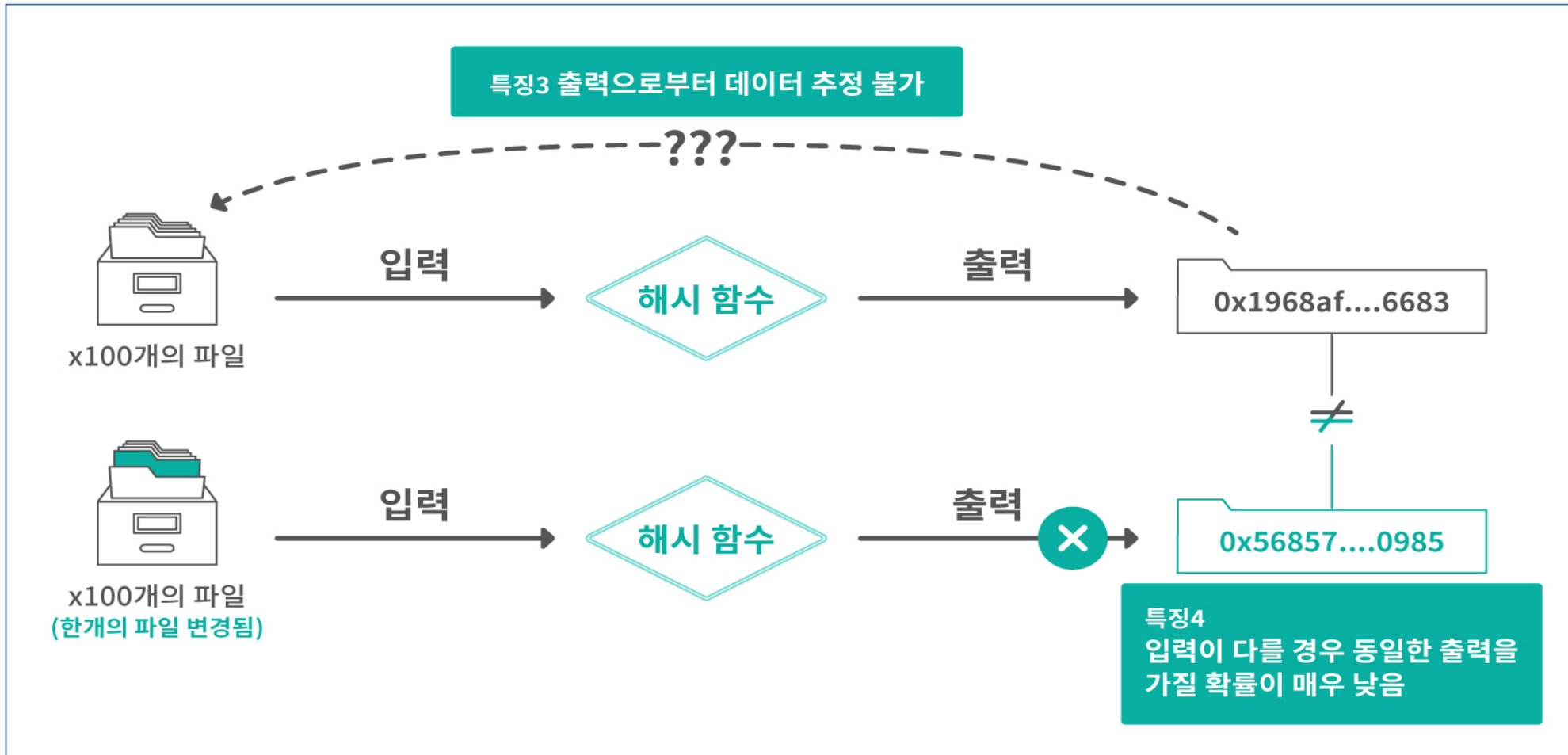


1. 블록체인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2. 블록체인은 **해시함수(hash function)**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포함한 **블록의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술**이다.
3. 블록체인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내고 수령할 때 제3자가 그 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암호화 하는 **비대칭암호화기술**이다.
4. 블록체인은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이나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처럼 참여 노드들, 즉 컴퓨터들 간에 **합의하는 알고리즘 기술**이다.
5.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암호화된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는 기술)**이다.
6. 블록체인은 인터넷 기술의 어깨 위에 존재한다.

# 해시(hash)함수와 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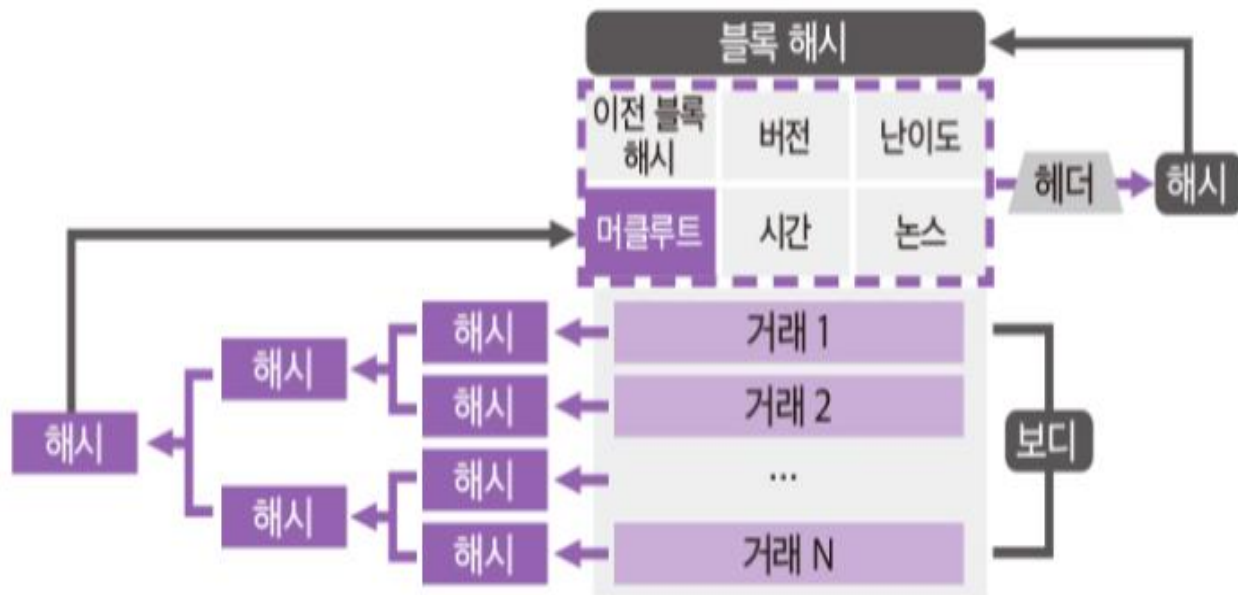
- 해시함수 : 다양한 길이를 가진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를 가진 데이터로 매핑하는 알고리즘.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거래 내역은 해시함수를 통해서 암호화 됨.
- SHA-256 : 블록체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시함수. 256비트로 구성되며 64자리 문자열로 변환
- 논스(nonce) : 블록체인에서 목표값 이하의 블록 해시를 찾기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숫자





<https://academy.dcentwallet.com/v/ko/cryptography-basic/what-is-a-hash-function-1>

# 개별 블록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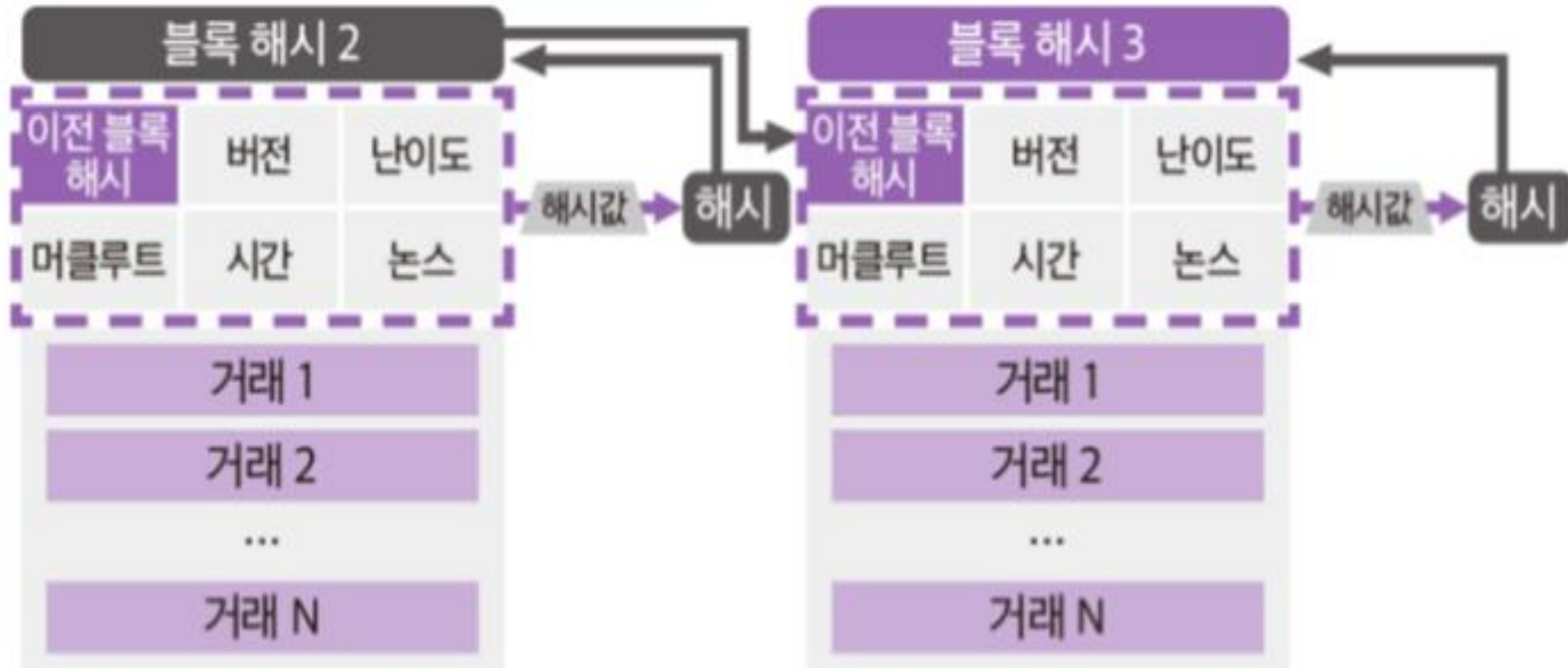


-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을 생성
- 블록의 해시를 찾는 작업은 논스 값을 변경해가며 수 없이 반복해야 하는 힘든 과정
-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 : 목표 값 이하의 해시를 찾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함으로써 해당 작업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
- 채굴(mining) : 암호화폐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얻는 행위를 통해 작업증명을 함
- 채굴 난이도는 점점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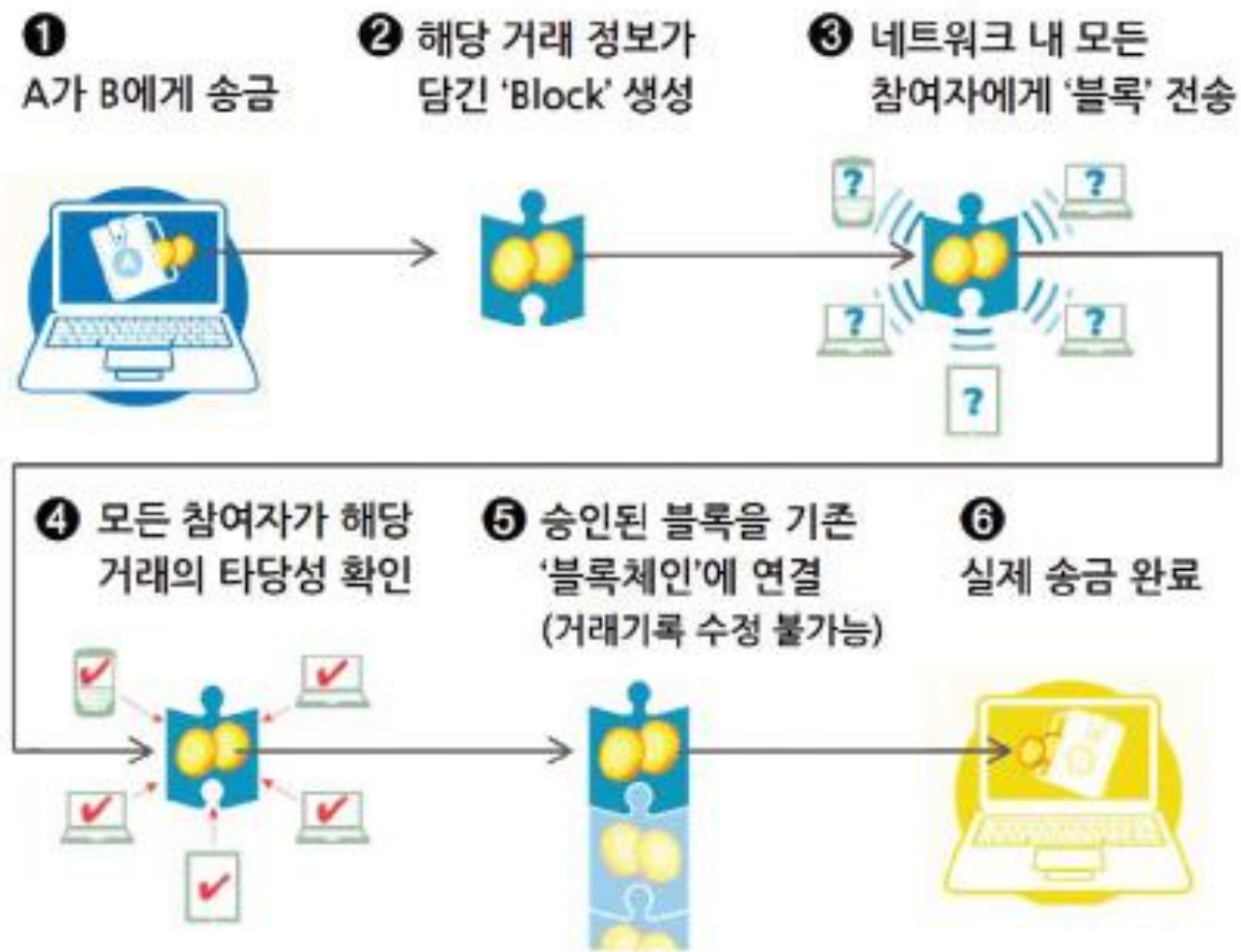
해시값  $Y = f(\text{이전블록 해시}, \text{버전}, \text{난이도}, \text{머클루트}, \text{시간}, \text{논스}) < \text{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일정한 목표 값}$

➔ 새로운 블록 생성

# 블록과 블록의 연결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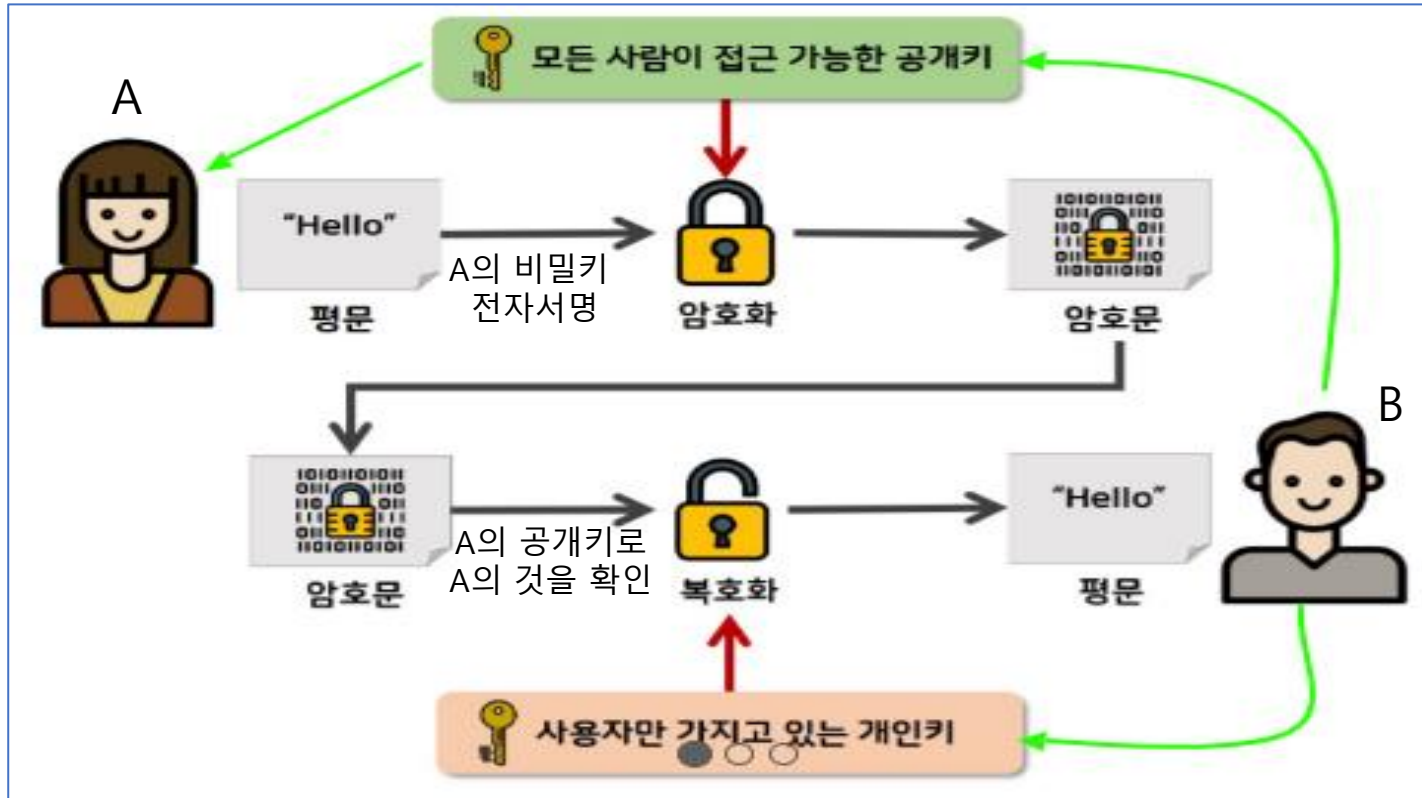


# 블록 연결의 예



출처: KB 지식 비타민-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의 변화

# 비대칭암호화키 기술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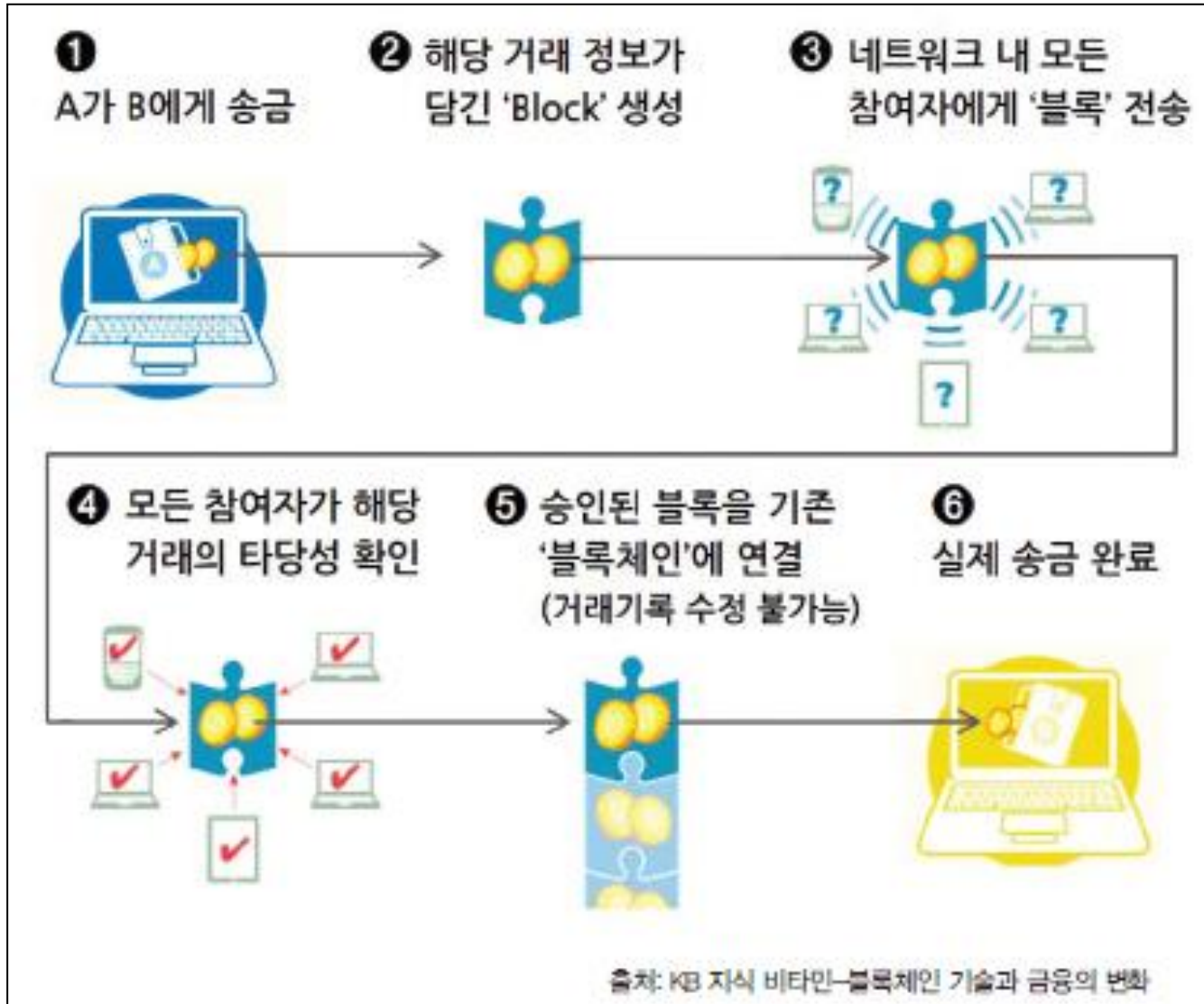


- 비대칭키(Asymmetric Key) 암호화 =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 암호화에 쓰이는 키 값과 복호화에 쓰이는 키 값이 다른 암호화 알고리즘
  - 개인키 (비밀키, 프라이빗키)
  - 공개키 (퍼블릭키)
- 최초로 형성된 블록을 다른 노드들이 검증할 때 활용: 최초 블록 생성자가 자신의 개인키로 블록에 전자서명하여 최초 블록을 전파시키면, 다른 노드들은 최초 블록생성자의 공개키로 검증하여 그것이 최초 생성자의 서명이고 위조되지 않았음을 확인
- 토큰을 송금할 때도 활용: 송금인이 토큰 송금 트랜잭션(송금수량 만큼 송금인 계정에서 빼고 수취인 계정에 더해 줌)을 만들어 개인키로 전자서명하여 노드들에게 전파하면, 다른 노드들은 송금인의 공개키로 송금인이 보낸 트랜잭션이라는 점과 송금하려는 토큰수량보다 송금인의 계정에 있는 잔액수량이 많은지를 검증하여 송금내역을 블록에 기록하여 저장. 그 후 수취인이 송금받은 토큰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려면 자신의 개인키로 새로 전자서명하여 다른 전자지갑주소로 송금할 수 있음

A가 메시지를 B에게만 보내려고 할 때, 메시지를 B의 퍼블릭키로 암호화하고, A의 프라이빗키로 전자서명해서 B에게 보내면, B는 공개되어 있는 A의 퍼블릭키로 메시지가 A의 것이고 손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메시지 내용은 B의 프라이빗키로 복호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s://raonctf.com/essential/study/web/asymmetric\\_key](https://raonctf.com/essential/study/web/asymmetric_key)

# 합의 알고리즘 (consensus algorith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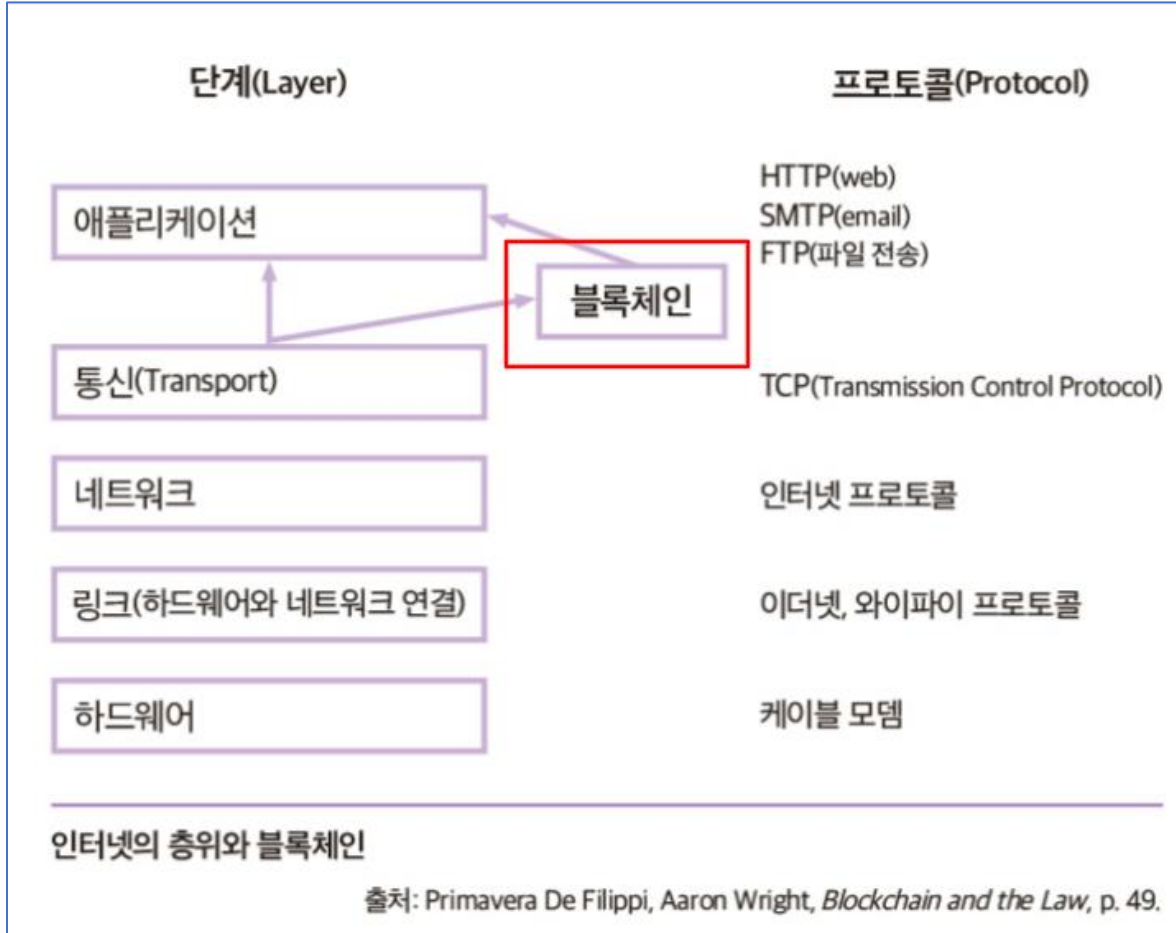


- 합의  
네트워크에서 '노드'라고 하는 피어 그룹이 유효한 블록체인 트랜잭션과 그렇지 않은 트랜잭션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 합의 알고리즘  
합의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 악의적인 행동과 해킹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 집합.
- POW : Proof of Work : 작업증명 가장 많은 Hash Power(그래픽카드 전력 등의 Computing Power)을 제공한 노드가 블록생성에 성공
- POS : Proof of Stake 지분증명 보유 암호화폐의 양(지분)에 따라서 블록생성에 성공

<https://crypto.com/university/ko/consensus-mechanisms-expla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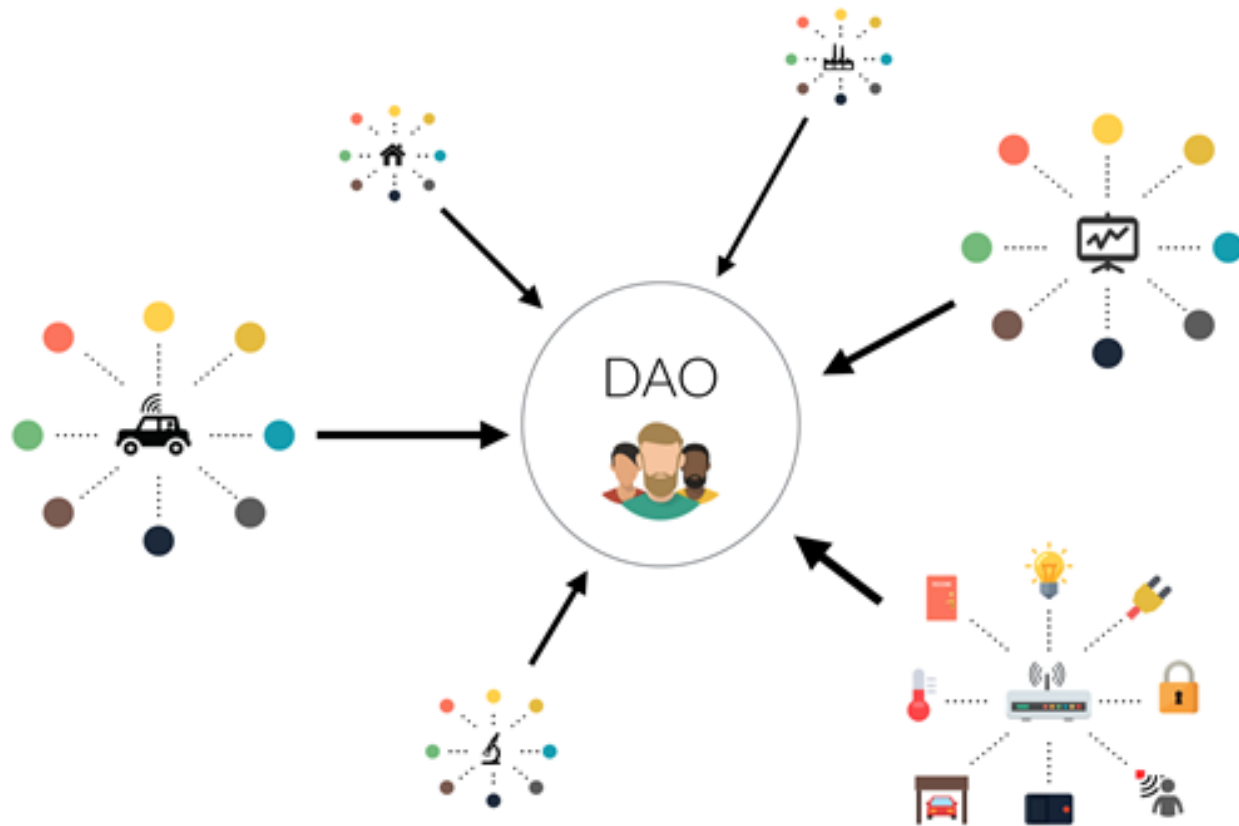


# 인터넷 기술의 어깨 위에 존재



-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통신 레이어 위에 위치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외에 다수 컴퓨터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코드를 작동하게 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게 해준다.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가 중앙화 기관의 서버와 그에 연결된 다수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블록체인은 서버 없이 각 컴퓨터들이 노드로 참여하여 서로 P2P(peer to peer)로 연결된 것이 다른 점이다.
- 인터넷이 등장한 초기: 사이버상에서 개인은 국가의 통제없이, 국가 경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생성, 전파하는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 → 포르노물, 도박, 불법적인 무기나 마약거래, 반사회적 모임... → 국가가 인터넷을 촘촘하게 규제 (IP 주소 부여), 거대 플랫폼 사업자 등장과 통제하게 됨
- 블록체인은 다수의 노드가 P2P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넷 자체에 대한 통제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제도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

#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조직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결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 가장 기본 개념은 특정한 구성원 또는 주주들을 둔 가상의 독립적 주체(virtual entity)가 구성원들의 일정 수 이상(예: 67% 이상)의 동의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지출·배분하고 코드를 변경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
- 조직의 자금을 급여, 보상 등의 항목에 배분하는 것은 기존의 회사나 비영리재단과 동일하나 자금이 다시 사람의 행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코드에 미리 정해진 대로 자동적·강제적으로 배분되게 하는 점이 다르다.
- 수평적 구조,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운영, 직접민주주의 (투표에 의해 운영), 암호화폐, NFT, SBT

#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계속 발전하는 기술

---

- 비트코인의 화폐 시도와 혁신성

- 비트코인은 전 세계 컴퓨터 간 P2P로 또는 암호화폐거래소에서 1년 365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 태양 아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산이 처음 생겨난 것
- 비트코인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개인 PC, 서버, 어느 누군가?
- 전송하는 자와 수신하는 자가 전자지갑만 보유하고 있으면 전송자와 수신자의 소재지 국가가 어디든지 관계없이 언제든 가능
- 비트코인은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 저렴한 비용에 전 세계로 경제적 가치를 이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
- 반면에 투기와 마약, 불법무기, 성착취 등 불법거래의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어두운 면도 존재
- 이런 대비되는 양면성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정책과 규제의 방향이 달라지게 됨

# 스마트 컨트랙트

---

- 스마트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의사능력이 있는 법적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이 일일이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합의하지 않고도 미리 정해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자산의 이전이나 블록체인 원장상 어떤 상태의 변화를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 물론 참여자들은 실명으로 확인되거나 실명의 당사자와 1:1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
- 법 체계하에서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논리적·실무적으로 구분되는 데 비하여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동시에 일어나고 **계약내용에 하자가 있어도 이미 이행이 완료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해제·해지하거나 수정할 여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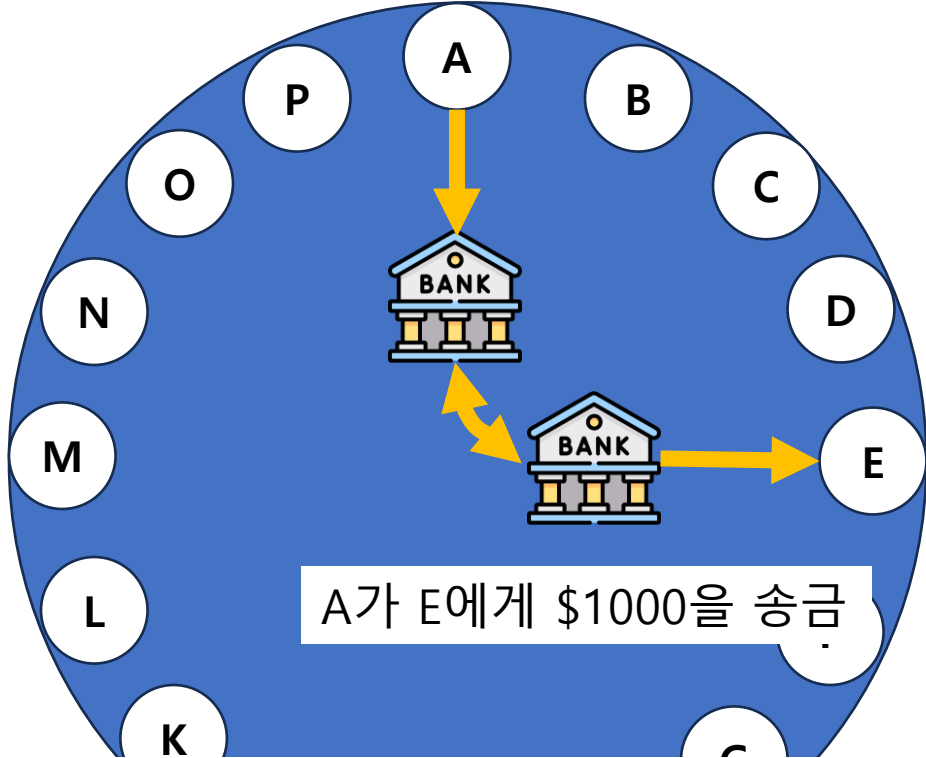


# 2장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새 질서

---

- 기록방식의 혁신- 종이, 디지털에서 크립토로
- 중앙화문명에서 탈중앙화로
- 디지털화, 가상성과 메타버스의 일상화
- 암호자산혁명과 신흥자본의 탄생
- 초국가적 토큰경제와 법의 글로벌 동조화
- 크립토사피엔스의 등장
-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 중앙화된 은행 중심의 송금



1. 휴가 기간이라 바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 누군가 \$1,000 을 \$100,000 로 바꾸어 놓았다.
3. 누군가 E가 아니라 H에게 보내도록 바꾸었다.
4. A뿐만 아니라 B, C, D도 \$1,000 씩 E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5. 은행이 지금 불능 상태로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다.
6. 송금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
7. 환율이 조정 되면서 더 많은 원화를 보내게 되었다.



4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 횡령액이 22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사건, 최근 경남은행 횡령사건을 포함한 것이다.

# 블록체인기술의 제도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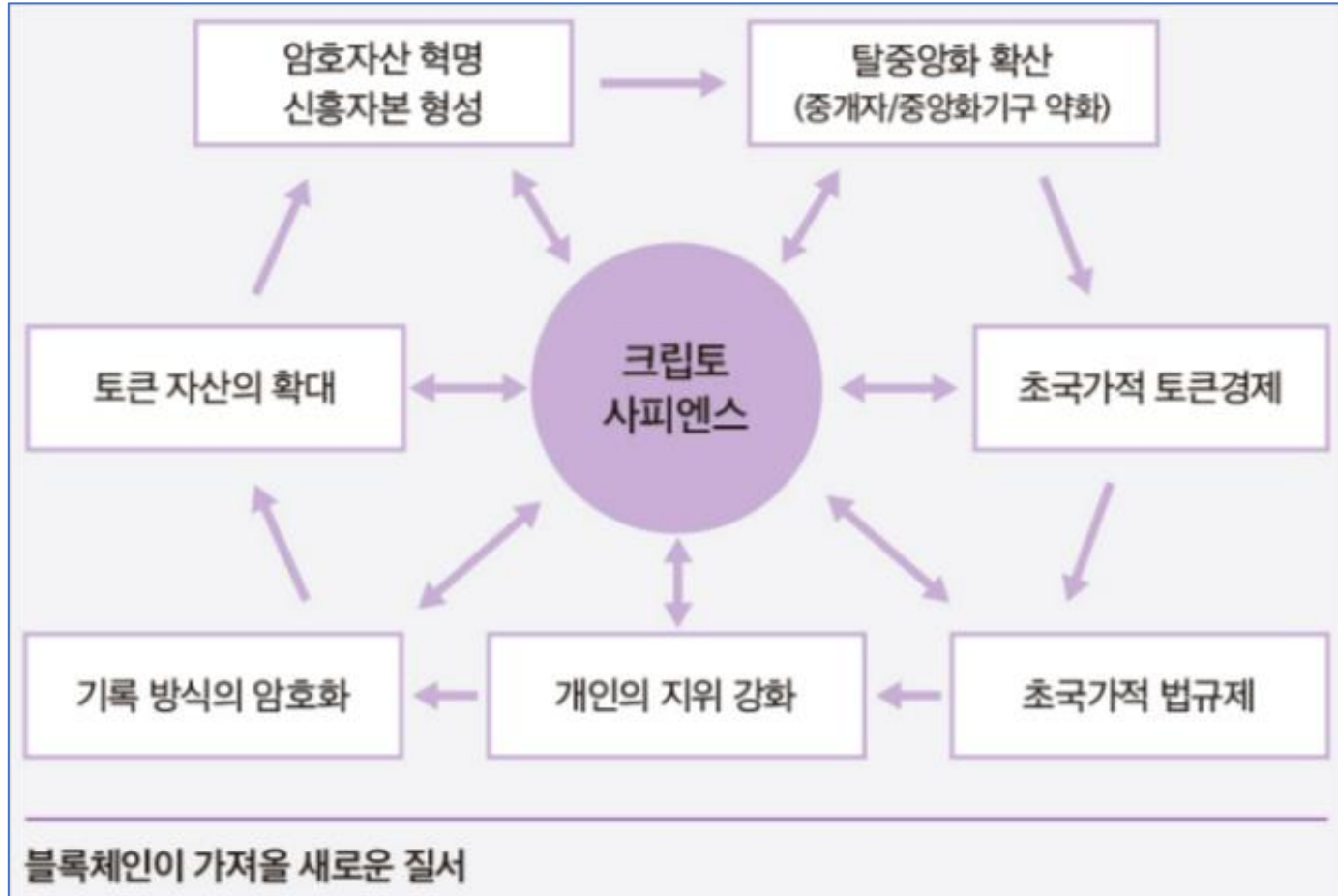
- 1. 기존 제도를 탈증개화·탈중앙화하고 있다.** 많은 정보, 데이터와 거래가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회사와 클라우드 컴퓨팅회사의 서버에서 벗어나 컴퓨터들의 네트워크 위로 옮겨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네트워크와 P2P거래, 오픈소스의 버그 등 오류에 대해 책임주체가 부재하거나 불명확해지는 현상이 동반된다
- 2. 익명 또는 가명 거래가 쉬워진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무료 배포되는 블록체인 프로그램으로 누구든 실명을 밝히지 않고 노드로 참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토큰거래자도 전 세계에 걸쳐 익명으로 토큰을 송금하고 수취할 수 있다.
- 3. 기록이 확정되면 사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는 블록체인이 가져온 가장 근본적 가치라고도 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서 일단 확정되어 기록된 데이터는 특별히 다수 노드를 매수하지 않는 한 사후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오류나 송금자의 착오로 잘못된 지갑주소로 가상자산이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이전 거래가 확정되어 취소할 수 없으며, 별도 행위로 사후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상에서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송금할 때는 송금인의 프라이빗키로 전자서명을 하므로 나중에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 블록체인기술의 제도적 의미

- 4. 퍼블릭 블록체인에 오른 기록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성이 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누구든 열람할 수 있어서 어떤 거래나 상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블록체인에 거래 당사자로 기록된 지갑주소 자체에 개인을 특정하는 내용은 없지만(지갑주소와 다른 정보가 결합되면 확인 가능) 누구도 그 거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발언이나 행위를 알리는 수단으로 블록체인에 기록을 남기면 모든 사람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5. 프로토콜 자체가 자율적으로 작동하므로 어떤 사람도 프로토콜 작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가 개발된 이후에는 특별히 다른 사정이 개입하지 않는 한 개발자의 손에서도 떠나 프로토콜과 스마트 컨트랙트로 스스로 작동하므로 아무도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못한다.
- 6. 네트워크의 복원탄력성이다.**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기록되면 어떤 이유로 노드 컴퓨터들이 다 망가지고 기록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노드 컴퓨터 하나라도 기록이 유지된다면 다른 컴퓨터에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복원할 수 있다.
- 7. 블록체인기술은 개발자가 독점적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블록체인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되고 오픈소스의 공유와 개방의 정신이 많은 사람을 블록체인에 끌어모으게 한다.

#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새 질서



- 토큰자산이 주도하는 자산혁명이 일어나고 초국가적 토큰경제가 확산된다.
- 경제적 변화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 디지털/크립토 문명을 가속화한다. 디지털 기반체제의 글로벌화라고 할 수도 있다.
- 개인의 자유와 지위가 강화되고 크립토사피언스의 존재와 역할이 가시화된다.
- 진정한 탈중앙화를 구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중앙화 체제와 공존한다.
- 국가와 기업의 권한이 약화되고 탈중앙화된 조직과 거버넌스가 늘어난다.
- 국가의 법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적 협업과 다른 국가의 동조화가 확대된다.

- 돈 탭스콧은 『블록체인 혁명』에서 블록체인을 '신뢰프로토콜'이라고 부르면서 "세계경제의 미래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칠 기술은 인공지능 등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고 단언했다.<sup>1</sup>
- 세계경제포럼의 설립자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을 혁명적 기술이라면서 "이 기술의 광범위한 실행은 당연히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블록체인은 온라인 금융거래부터 투표방식은 물론 상품이 어디서 생산되는지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김용범은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의 확산과 도전은 단순히 산업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문명사적 의의'를 지닌다. 사토시의 작은 날개짓은 훗날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도전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평가한다.
-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블록체인은 기록의 변경을 어렵게 만들어 더 투명하고 책임이 명확한 사회로 인도하고, 개인과 공동체에 데이터의 권한을 돌려줌으로써 탈중앙화되고 더욱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인류는 오랫동안 관념과 허구의 제도를 만들어왔고, 블록체인기술에 기초하여 만든 암호화폐도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방식을 관념적으로 새로 창출해낸 것이며, 그 점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가치가 얼마인지는 다양한 고려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거래 가능한 대상인 만큼 여타 재화처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영향받는 것은 물론, 특정 토큰이 만들어져 이용되는 메인넷에 대한 신뢰와 확장 가능성, 편의성, 보안성, 신속성과 비용 정도 등이 모두 고려된다....
- 그 이후 인간은 항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사는 사회를 운영하고 지배하는지 등을 고민하며 많은 제도를 창안해 왔다. 종교, 관료제, 국가, 학교, 회사, 증권거래소 등은 모두 물리적 형태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 작동하는 허구의 시스템이고, 유발 하라리는 이런 것들을 상호주관적 제도라고 표현했다.
- 인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의 단계를 거쳐오며 많은 제도를 새로 만들고 발전시켰다. 탈중앙화된 컴퓨터 네트워크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화폐, 금융, 부동산등기, 회사제도의 본질은 관념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것이었다. 화폐, 금융, 부동산등기, 회사 자체가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유발 하라리가 예로 든 프랑스의 푸조자동차사나 한국의 대표적 자동차회사인 현대기아 자동차(주)... 회사등기소의 등기원부라는 가상의 세계에 존재할 뿐 자동차 생산공장이나 본사 사무실, 회사가 소유한 여러 물리적 자산이나 대주주나 임직원 같은 사람들이 자동차회사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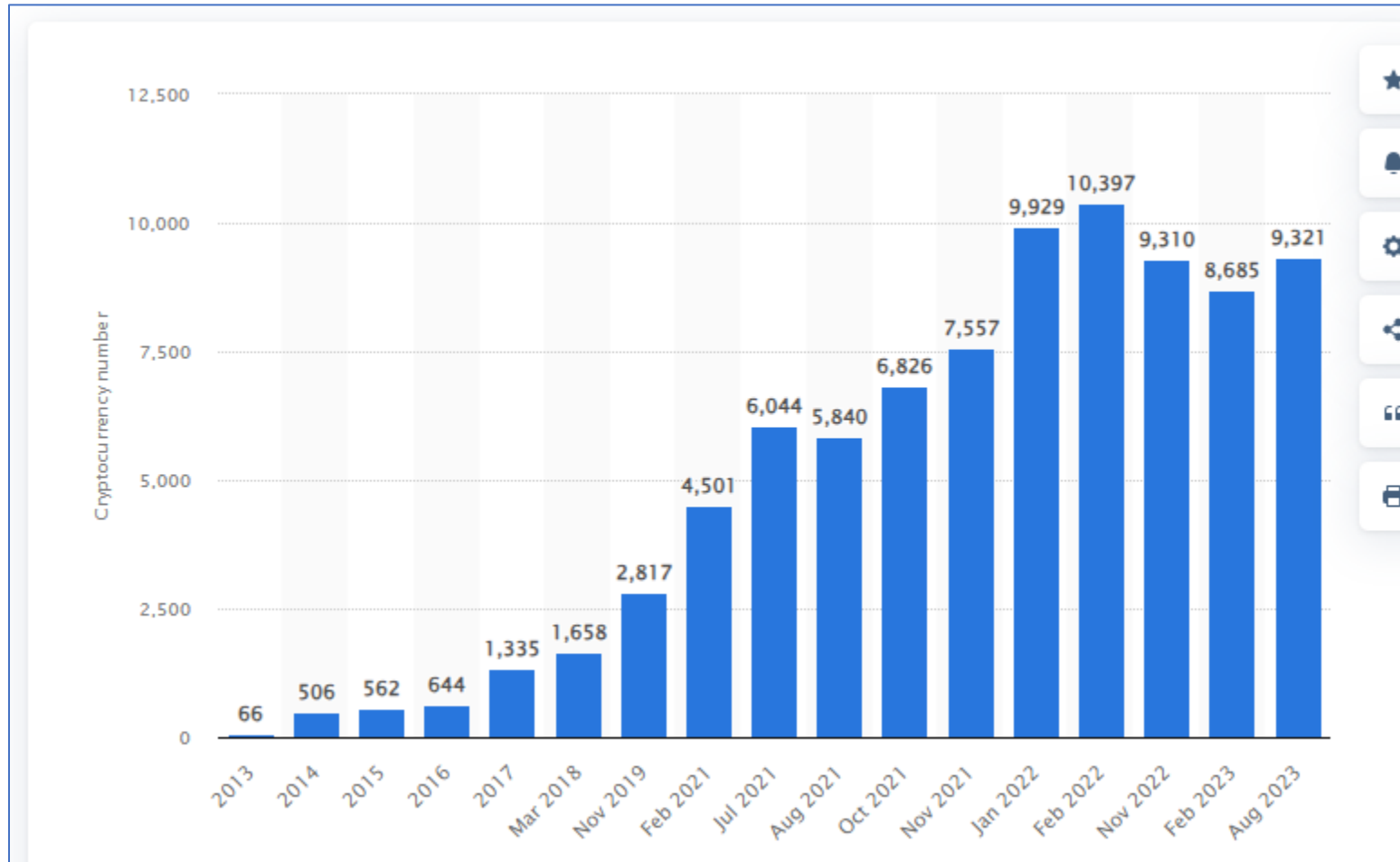
- 노장철학자 최진석 이사장(새말새몸짓재단)도 **가상은 원래 진실의 한 형태였다고 명쾌하게 말했다. 인간의 진화는 원래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믿던 곳에서 점점 더 '안 만져지고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도구의 시대와 기술의 시대를 거쳐 과학의 시대로 진입하면 메타버스까지 왔다는 것이다. 메타버스는 가짜가 아니라 확장된 영토로 진화한 또 다른 진실이므로 겁먹지 말고 진화의 질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작가 이인화는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서 게임의 놀이 요소를 갖고 있지만, 이는 인간 욕망의 중개자일 뿐 메타버스의 목적은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주장한다. 메타버스의 과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역설하여 메타버스가 일상화되는 것이 불가피함을 예견하고 있다...
- 문명비평가 이어령 선생도 디지로그(digilog)라는 개념을 주창하면서 **디지로그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며, 아날로그 세계는 진짜이고 디지털 세계는 가짜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잘못되었다고 역설했다.**

- 
- 기록방식의 혁신- 종이, 디지털에서 크립토로...
  - 중앙화문명에서 탈중앙화로...
  - 디지털화, 가상성과 메타버스의 일상화...
  - 암호자산혁명과 신흥자본의 탄생...
  - 초국가적 토큰경제와 법의 글로벌 동조화...
  - 크립토사피언스의 등장...
  -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 3장 자산의 토큰화와 토큰경제화의 확대

- 자산의 토큰화와 토큰경제
- 토큰을 수용하는 재산법 체계
- 스마트 계약에 따른 거래의 혁신과 과제
- 디파이와 전통금융의 경쟁과 보완
- 디파이 규제와 법의 혁신
- NFT, 대체불가능성의 토큰화
- 게임의 탈중앙화와 P2E에서 X2E까지
- NFT와 P2E 게임에 대한 규제
- STO와 자본시장의 혁신
- 증권형 토큰의 활성화와 자본시장규제의 변화
- 토큰의 글로벌 성격과 외국환거래규제

# Number of cryptocurrencies worldwide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863917/number-crypto-coins-tokens/>

- from 2013 to August 2023
- 대략 2023 기준 9천개 정도의 코인이 존재
- 실제로는 2만개정도 있으나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며 비활성화 되어 있거나 사라진 것들이 많음
- 상위 20개의 암호화폐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 함



## 4장 화폐와 지급결제의 혁명

- 화폐주권에 도전한 기술이 만든 화폐 CBDC
- CBDC를 인정하는 법체계
- 스테이블코인
- 지급결제 토큰
- 스테이블코인과 지급결제 토큰의 제도화

# 5장 웹3.0, 분산형 신원확인과 DA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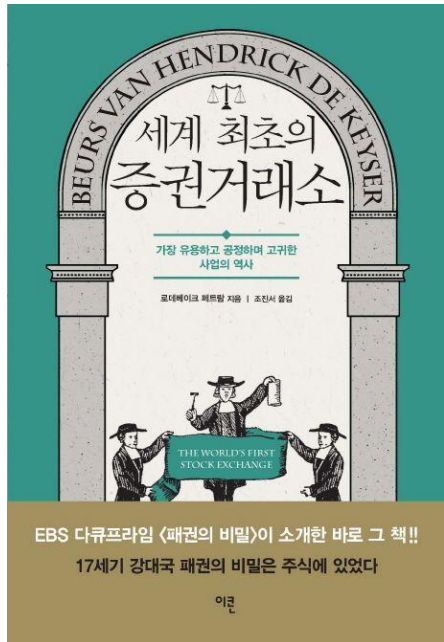
- 웹의 진화와 웹3.0의 개념
- 웹3.0과 블록체인의 결합
- DID, 신원증명의 탈중앙화
- DID, 분산신원확인의 근거법
- 동인도회사와 비트코인 네트워크
- 계, 회사 그리고 DAO
- DAO의 법적 주체성 인정

# 6장 크립토사피엔스의 과제와 크립토 혁명

---

- 탈중앙화의 한계와 극복
-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개인정보보호의 충돌
- 국가의 법과 초국가적 규범
- 새 질서의 선도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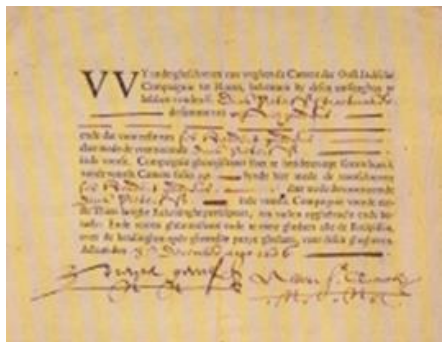
# 암호화폐의 출현은 시대 변화의 파도



EBS 다큐프라임 <파권의 비밀>이 소개한 바로 그 책!!  
17세기 강대국 파권의 비밀은 주식에 있었다

이런

[https://blog.naver.com/ssyong98/22105672448\\_6](https://blog.naver.com/ssyong98/22105672448_6)



[https://museum.ksd.or.kr/static/m\\_b0102000013\\_ba](https://museum.ksd.or.kr/static/m_b0102000013_ba)

- 1602년 세계최초의 주식회사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주권 발행(장부 기록 방식)을 하면서 주식이 탄생하였고, 주식투자는 17세기 암스테르담의 국민 스포츠였다.
- 이후 200여년이 흐른 1802년에 런던 거래소가, 1817년에 뉴욕거래소가 설립되었다.
- 한국 최초의 주식회사 1897년에 설립된 대조선저마제사주식회사로 최초의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지 거의 300년이 흐른 뒤에 세워졌다. 주식의 역사를 보면 수백년이 흐르면서 혼란이 지나고 제도와 법이 정비되고 국제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 암호화폐는 탄생한지 이제 14년, 주식의 역사에 비추어 아직 갓난아기 상태이나 세계는 빠르게 동조화 되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암호화폐 시스템에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
- 암호화폐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가? 암호화폐는 전제 자산의 0%에 해당되지만 앞으로 이세상을 바꾸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파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 파도의 선봉에 서는 자가 결국 그 파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